

치 사

풍성한 결실과 나눔의 행복이 넘치는 절기에 제27회 포교대상 시상을 함께하게 되어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묵묵하게 포교현장에서 수행정진 하시는 포교대상 수상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삶에서 고뇌와 희망이 날줄 씨줄처럼 엮여가듯이 수상자 여러분들도 포교현장에서 많은 희비를 겪어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오롯이 펼쳐 나간다는 신념이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은 당연합니다. 오늘 뜻 깊은 수상의 자리에서 그간의 노고에 자축을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사부대중 모두는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영예로운 포교대상을 수상하시는 성운스님은 사찰, 교도소, 군부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해 오셨던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도소 종교위원으로 1440여회 법회를 운영하셨다고 하니 포교에 대한 원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포교대상 수상자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 사찰음식, 문화재, 템플스테이, 새터민 포교 등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사회흐름만큼이나 포교의 영역도 구체화되고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통해 현시대의 삶에 담긴 고통을 해소하고 21세기 한국사회의 갈등과 화합을 도모하는 기재로 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의 방편으로서 보편화되도록 오늘의 결실을 함께 축하하고 나누며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가을 산사의 아름다움은 세계 유수한 자연환경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부터 사계가 뚜렷하다는 이 한반도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비껴갈 수 없는 듯합니다. 어느 시인의 ‘꽃이 피는가 싶더니 꽃이 지고 있습니다’ 라는 쇠구처럼 봄과 가을은 어느덧 쉬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연기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삼라만상은 독립적으로 존

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과 자비의 종교입니다.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법의 첫걸음입니다. 포교대상을 시상하는 오늘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가치를 다지고 서로 나누는 의미이기에 시대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을 하셨듯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우리 불자들의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상자들의 헌신적 삶처럼 자연의 생명과 더불어 살기 위한 실천행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또 모범으로 삼아 정진해 나간다면, 인류가 직면한 평화와 생존의 문제 또한 조금씩 해소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저마다의 노력으로 감동을 이루었던 한해도 향기롭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또한 하나의 매듭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매듭을 시작하는 무수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듯이, 내년의 튼실한 매듭을 위하여 남은 동안 원력과 성심을 다하여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의 결실이 모두의 행복으로 널리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11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